

慶州九黃里 皇福寺 石塔藏「無垢淨光大陀羅尼經」 ‘銘文’과 實物

Inscription and the original material of 「Wo gou jing guang dai tuo luo ni」
preserved in the Pagoda of Hwangbok-sa Guhwangri Gyeongju

沈喆俊 (Shim, Woo-Choon)*

◁ 목 차 ▷

- | | |
|----------------------|---------------------|
| 1. 緒言 | 石塔藏「無垢淨光大陀羅尼經」 |
| 2. 慶州 九黃里 皇福寺 石塔藏 | 調査記 중 問題點과 銘文 |
|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銘文’ | 4.1 腐蝕物을 통해 본 杉山信三의 |
| 3. 辭典類에 나타난 ‘銘文’의 說明 | 實物 調査의 視覺 |
| 3.1 諸橋轍次 編 縮寫版 ‘銘文’ | 4.2 皇福寺藏 ‘銘文’에 나타난 |
| 說明 | ‘一卷’의 解釋 |
| 3.2 羅竹風 編 「漢語大詞典」 | 5. 結言 |
| ‘銘文’ 說明 | <참고문헌> |
| 4. 杉山信三의 慶州九黃里 皇福寺 | |

< 초 록 >

本稿는 慶州 九黃里 皇福寺 石塔藏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을 본 바, 佛國寺 釋迦塔藏 「無垢淨光大陀羅尼經」과 같다하여 706년부터 751年間に 印出된 木版本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羅代의 ‘銘文’에는 ‘一卷’이라는 字句로 보아 卷子本 이 아님을 鑑定 한 것이다.

要語：無垢淨光大陀羅尼經

* 任 中央大 教授(本학회 고문)

접수일: 2004년 12월 10일 최초심사일: 2004년 12월 11일 심사완료일: 2004년 12월 15일

<ABSTRACT>

This article evaluates the view that 「Wo guo jing guang dai tuo luo ni」 in Pagoda of Hwangboksa Guhwangri Gyeongju(慶州 九黃里 皇福寺 石塔藏<無垢淨光大 陀羅尼經>) is a wood-block printing published in between year 706 and 751, because it has same contents as 「Wo guo jing guang dai tuo luo ni」 in Sukgatap of Bulguksa(佛國寺 釋迦塔藏 <無垢淨光大陀羅尼經>). However, I appraise that it is not a scroll as the character 'first volume(一卷)' is seen in 'the inscription' of Silla dynasty (羅代의 '銘文).

Keywords : 「Wo guo jing guang dai tuo luo ni」



1. 緒言

이 研究가 언제부터 本格的으로 試圖되었는지는 未詳이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論爭된 것은 中國學者 錢存訓의 武周新字 地·授·證·初자가 釋迦塔藏本에 나타난 것을 보고 洛陽에 유학 왔던 留學生이 韓國 佛國寺에 가지고 가서 釋迦塔의 儀典용으로 썼다¹⁾ 하였고, 이어서 潘吉星도 異體字 중 陀·愿·貌·那·底·恩자가 있는 것을 보아 唐初의 武周新字 라고 前者說을 補充하고 나섰다.²⁾

이것이 그 嚆矢요, 中國 측의 주장은 武則天字가 中國 고유의 創制字임은 불가피하다고 자신 있게 역설했고, 두 번째는 延世大 주최로 1999년 10월 9일부터 同大學에서 2일간 國際會議가 개최되었는데 韓國 측에서는 韓國 것임에 의심할 바 없다³⁾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었다. 이의 兩論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는 韓·中間의 論爭이었다. 한편 中國 측에서는 潘吉星 尙東發 陳振濂이 참석하여 중국고대를 소급하여 자기네들의 說을 再次 力說하였다. 한편 日本側에서는 「百萬塔陀羅尼經」에 대해 石塚晴通이 참석, 이를 捺印本이라고 주장했고, 다시 韓國에서는 孫寶基·金聖洙·金壽天의 발표가 있었는데, 孫寶基·金壽天은 中國측의 발표에 과감히 대응했고, 金聖洙는 釋迦塔藏本을 新羅의 것으로까지 溯及하여야 한다는 持論이 강하게 進行되었다.⁴⁾

이러한 論爭 중 韓·中 兩論이 相剋되듯 심각히 論議되자 2002년에 沈暁俊이 中國에 가서 敦煌石室을 위시, 中國側 論이 사실이 아님을 二個月餘에 걸쳐 여러 곳을 踏査하면서 남긴 著述⁵⁾도 있다.

1) 錢存訓, 「造紙及印刷」, (臺灣: 商務印書館, 1005), 194.

2) 潘吉星, 從考古發現看印刷起源, 光明日報, (1997. 3. 11.), 5

3) 孫寶基, 「無垢淨光大陀羅尼經」에 관한 諸問題, 延世大 주최 國際會議錄, (1999. 10).

4) 金聖洙,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刊行事實考證에 의한 世界木板印刷圖書의 起源에 관한 研究, 延世大 주최 國際會議錄, (1999. 10.) 65-143.

5) 沈暁俊, 「無垢淨光經」傳入與否攷, (서울: 三希出版社, 2002).

2. 慶州 九黃里 皇福寺 石塔 舍利函의 ‘銘文’



<慶州九黃里 皇福寺 石塔 舍利函 蓋部 內面の 銘文 拓本>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려면 우선 ‘銘文’과 실물을 대비할 수밖에 없다. 우선 ‘銘文’의 이해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최근 문제되고 있는 것은 아래의 문장 중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銘文’부터 보고자 한다. 이 ‘銘文’은 다음과 같다.

이 ‘銘文’은 도합 18行 344字, 많게는 행당 20字, 적게는 행당 18자로 된 글

자가 붓으로 쓰여졌다면 선명할 것이었지만 얇은 물체에 무슨 기구로 긁어 쓴 탓으로 선명치 않다. 이의 내용을 옮겨보면 첫 행부터 8행까지가 주목되고 있다. 이 '銘文'은 선명치 못하여 원문을 알 수 있도록 소개하고 이를 우리말로 우선 直譯해보면 다음과 같다.

銘文의 前文:

무릇 성인(聖人)은 옷을 늘어뜨리고 팔짱을 끼고 혼탁한 세상에 거처하여 백성을 양육하고 만물을 낳으며, 지극한 덕을 체득한 사람은 무위(無爲)로써 인간이 사는 세상(閻浮)에 응하여 무리를 구제한다.

신문대왕(神文大王)은, 오계(五戒)를 가지고 세상에 응대했고, 십선(十善)을 행하여 백성을 다스리니, 다스림이 안정되었고 공(功)을 이루었다. 천수(天授) 3년 임진(壬辰, 692) 7월 2일에 승천했다. 그래서 신목대후(神睦太后)와 효조대왕(孝照大王)이 종조(宗厝)의 성령(聖靈)을 받들기 위하여, 선원(禪院)의 가람(伽藍)에 3층 석탑을 건립하였다. 성력(聖曆) 3년 경자(庚子, 700) 6월 1일에 신목대후가 드디어 길이 인사하고 높이 불국(佛國)에 올라갔다. 대족(大足) 2년 임인(壬寅, 702) 7월 27일에 효조대왕이 등하(登霞)하였다. 신룡(神龍) 2년 경오(景午, [실은 丙午] 706) 5월 30일에 지금의 주인이신 대왕(大王)이 불사리(佛舍利) 4립과 전체가 금으로 도금되고 높이가 6촌인 미타상(彌陀像) 1구와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 1권(6)을 석탑 제2층에 안치하였다 는 것이다.

銘文의 中半部를 譯해보면 다음과 같다.

6) 우선 이 명문이 선명치 못하므로 그 문의를 아는데 주력하였다.

銘文 前文:

夫聖人垂拱，處濁世育生，至德無爲，應閻浮而濟群。有 神文大王，五戒應世，十善御民，治定功成。天授三年壬辰七月二日，乘天 所以神睦太后孝照大王，奉爲 宗厝聖靈 禪院伽藍，建立三層石塔。聖曆三年庚子六月一日，神睦太后，遂以長辭，高昇淨國。大足二年壬寅七月廿七日，孝照大王 登霞。神龍二年景午五月卅日，今主大王，佛舍利四 全金彌陀像六寸一軀，無垢淨光大陀羅尼經一卷，安置石塔第 二層。

銘文의 中文:

바라건대 이 복전(福田)으로, 위로 신문대왕과 신목대후와 효조대왕과 대대로 이어질 성조(聖厝)가 배개로 삼을 열반(涅槃)의 산과 앓을 보리수(菩提樹)로 삼을지어다. 용기대왕(隆起大王)은 천수(天壽)는 산과 강 같이 오래가고, 왕위(王位)는 건천(乾川)과 더불어 같이 커지며, 수많은 자손을 충분히 두고, 칠보(七寶)가 상서로움을 드리울지어다.

왕후(王后)는 몸은 달의 정령과 같고, 수명은 겁수(劫數)와 같아지고, 내외(內外)의 친속(親屬)은 길고 큰 옥수(玉樹)가 되어 무성한 열매와 보배로운 가지가 될지어다.

법석(梵釋)과 사왕(四王)은 위의(威儀)의 덕이 더욱 밝아지고, 기력(氣力)이 있고 자재(自在)해질지어다.

친하는 태평하고 항상 법륜(法輪)이 돌아가서, 3도(三塗)는 재앙을 벗어나고 6취(六趣)는 즐거움을 받으며, 법계(法界)의 중생은 성불할지어다⁷⁾

다음은 後文으로 寺主의 문제이다.

銘文의 後文:

사주(寺主)는 사문(沙門) 선륜(善倫)과 소판(蘇判) 김순원(金順元) 김흥종(金興宗)이다. 특봉교지(特奉教旨)는 승령(僧令) 휴(休)와 승령(僧令) 대한(大韓)과 내모(奈麻) 아모(阿模)와 한사(韓舍) 계력(季歷)이다. 탑전(塔典)은 승(僧) 혜안(惠岸)과 승(僧) 심상(心尙)과 승(僧) 원각(元覺)과 승(僧) 현방(玄昉)과 한사(韓舍) 일인(一仁)과 한사(韓舍) 전극(全極)과 사지(舍知) 조양(朝陽)과 사지(舍知) 순절(純節)이다. 장(匠)은 계생(季生) 알온(闕溫)이다.⁸⁾

7) 銘文 中文:

以下, 以此福田 上資 神文大王 神睦太后 孝照大王 代代聖 枕涅槃之山 坐菩提之樹. 隆基大王 壽共山河同久 位與乾川等大 千子具足 七寶呈詳. 王后 體類月精 命同劫數, 內外親屬 長大玉樹 茂實寶枝. 梵釋四王 威德增明 氣力自在. 天下太平 恒轉法輪 三塗 勉難 六趣受樂 法界含靈俱成佛道

8) 銘文 後文:

寺主: 沙門 善倫, 蘇判 金順元 金興宗. 特奉教旨: 僧令 携, 僧令 大韓, 奈麻 阿模, 韓

寺主 중에는 奈麻·韓舍·舍知 등은 新羅의 官制임을 보아 羅代의 記錄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문제는 ‘銘文’인데 이러한 ‘銘文’은 무엇을 말하는가? 일반적으로 쓰이기는 石器에 쓴 글을 보아 ‘銘文’이라 한다. 그러나 내용이 문제이다. 이를 辭書에서 보고자 한다.

3. 辭書에 나타난 ‘銘文’의 說明

3.1 諸橋徹次 編 縮寫版 ‘銘文’ 內容의 說明

死亡者의 公德을 讚揚하여 後世에 알리는 글, 즉 反省 戒 祝頌類, 警戒하는 글을 남겨 경고하는 내용. ‘銘’은 金石에 刻文을 남기는 것, 死者의 姓名, 官位의 表示, 警戒, 祝頌을 하되 器物에 刻하여 남기는 글⁹⁾로 되어있다.

또한 다른 사전을 보고자 한다.

3.2 羅竹風 編 漢詞大辭典의 ‘銘文’

위에서 열거한 내용과 大同小異하다.

‘銘’은 刻字로서 金石에 새긴 文章, 稱頌, 警戒하는 글, 다만, 收錄範圍는 152字로 限定¹⁰⁾되어 있다.

이를 보면 金石에 새기되 152字까지 쓸 수 있었으나 이 銘文에는 344字나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論題가 ‘銘文’으로 되어 있으니 혹 특수한 경우도 있을까. 金石에 새겨 넣는 것을 ‘銘’이라 하고 그 내용은 例文이 다양하다.

舍 季歷, 塔典: 僧 惠岸, 僧 心尚, 僧 元覺, 僧 玄昉, 韓舍 一仁, 韓舍 全極, 舍知 朝陽, 舍知 純節. 匠 季生闕溫

9) 諸橋徹次編, 「大漢和辭典」縮寫版 卷11, 542.

10) 羅竹風 編, 「漢詞大詞典」第11冊, 銘 1273 銘文條.

4. 杉山信三의 慶州 九黃里 皇福寺 石塔의 調査記 中 問題點과 同 ‘銘文’

日語로 된 이 글의 요지를 주려보면 다음과 같다.

“이 塔의 基壇은 매우 傷해서 倒壞의 위험이 大分 처해 있으므로 朝鮮總督府에서는 昭和 17(1942)년 여름에 이를 손을 써서 改建하였고, 그것을 본 바, 이 塔 제2층 塔蓋에 장치했던 것은 軸部의 上端 中央部가 파졌고, 그 周圍緣이 覆輪되었다하며, 뚜껑은 別石(凝灰巖)과 같은 材質이었다고 하고, 뚜껑만큼 크게 제3층 軸部 下段은 웅덩이가 파졌다는 것이다. 제3층 軸部를 보면 파져있었으나, 鑲金 靑銅製 函을 彷彿케 하였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주시될 문구는 다음 문제이다.

- A. 腐蝕物을 통해 본 杉山信三의 實物調査의 視覺
- B. 皇福寺 石塔藏 ‘銘文’에 나타난 ‘一卷’의 解釋

위 문제 중에서 주시될 것은 즉 ‘竹棒의 腐蝕殘滓가 무수히 많았다’¹¹⁾ 이것은 이미 損失된 原本이다. 다시금 주시하겠지만 竹棒이 어디에 쓰여졌다는 뜻인지 竹棒의 용도가 미상이다. 혹 卷子本이었다면 朴달나무 축이 부식되었다고 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는 뜻인가. 상술한 ‘銘文’에는 분명히 「無垢淨光大陀羅尼經」 ‘一卷’¹²⁾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혹 杉山의 부적 당한 시각이 아닐까? 축을 대나무로 만들었을 리가 없고 卷子本이라도 ‘一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一卷’은 있을 수 없다. 卷子本은 종이와 종이를 이어서 두루마리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판본의 명칭을 보면 재고할 일이다. 필자의 앞은 소견으로는 寫經을 뜻하지 않는가 한다. 書誌學에서는 板本을 중시하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11) 杉山信三 踏査記, 「朝鮮의 石塔」, 昭和19年(1944) 3월 20日.

12) 註6) 參照.

5. 結 言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同一本 여부를 판별하는데 중요한 단계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겠으나, 그에 대한 是是非非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닌가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板本學적 추구이다.

만일 손실된 原本에 준할 수 있는 資料가 어느 때 어디에서 발견되더라도 성급히 서두르지 말고 目錄學, 板本學, 校勘學적 방법은 물론 辨僞學, 輯佚의 구분을 요하고 있다.

<참고문헌>

- 錢存訓. 「造紙及印刷」. 臺灣: 商務印書館, 1995.
- 潘吉星. 從考古發現看印刷起源, 光明日報. (1997. 3. 11.)
- 孫寶基. “「無垢淨光大陀羅尼經」에 관한 諸問題,” 延世대주최 國際會議錄. (1999. 10).
- 金聖洙.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刊行事實考證에 의한 世界木板印刷圖書의 起源에 관한 研究.” 延世대주최 國際會議錄. (1999. 10.)
- 沈喆俊. 「無垢淨光經」傳入與否攷. 서울: 三希出版社, 2002.
- 杉山信三. 「朝鮮の石塔」. 昭和19年(1944) 3월 20日